<반짝반짝 한국어> 시간제 일자리는 늘었다지만…고용의 질은 우울

Hello and Welcome to Twinkling Korean podcast season 5 episode 8. This podcast is designed to help people learning Korean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M: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한국어의 Stefano 입니다.

F: 안녕하세요. 진이입니다.

M: 오, 진이 씨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옷이며 화장이며 보통 때랑 좀 다른데요?

F: 그런가요? 사실 오늘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동창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M: 고등학교 동창이면 한 20 년 만에 만난 건가요?

F: 아이구, 저 그렇게 나이 안 많거든요!!!

M: 하하, 미안해요. 농담이죠.

F: 아무튼, 20 년까지는 아니지만 꽤 오랜만에 만났어요. 다들 인생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결혼들도 하고 애들도 있고 외국에 살게 된 친구도 있고...

M: 그렇군요. 전 결혼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애가 있으면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F: 네. 회사를 그만둔 친구들이 꽤 많아서 사실 좀 놀랐어요. 육아 휴직 후에 시어머니나 어머니가 애를 좀 봐 주면 회사를 다닐 수 있는데 사정이 안 돼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M: 여자들은 확실히 아이를 낳은 후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일과 육아를 동시에 같이 하기 힘들어 회사를 그만두면 그동안 쌓은 커리어가 너무 아깝잖아요. 요즘은 여자들도 교육을 많이 받는데요.

F: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경단녀'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들어 봤어요?

M: 경단녀? 뭔가의 줄임말인가요?

F: 네, 경단녀는 경력단절녀의 줄임말인데요. 결혼이나 출산으로 일을 그만둔 후 직장으로 돌아오지 못해 커리어를 더 이상 쌓지 못하게 된 여성들을 말해요.

M: 아이구, 정말 안타까운 표현이네요. 꼭 9 시에 출근해서 6 시에 퇴근하는 일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프리랜서처럼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면 경력이 끊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F: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것이 등장했어요.

M: 오, 말 그대로 자신이 스스로 시간을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part time 일자리인가 보죠? 아이가 어린 여성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겠는데요?

F: 저도 일단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스타벅스가 도입한 시간제 고용 프로그램인 리턴맘 제도가 아주 좋은 예인데요. 특히 얼마 전에는 시간 선택제로 일하던 여성분들이 모두 전일제 직원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M: 와, 전일제라면 그러니까 full time 정규직 직원으로 바뀌었다는 거네요?

F: 네, 맞아요. 시간제로 일하던 여성들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육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육아 문제가 해결된 후 더 일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일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M: 그런데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는 건 어쨌든 part time 아닌가요? 그럼 고용이 좀 불안할 것 같은데 문제는 없나요?

F: 당연히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문제점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Stefano 씨 생각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M: 음...일단 아까 말한 대로 고용 상태가 좀 불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짧게 일하니까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과연 회사에서 part time 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일을 줄지 그것도 좀 걱정되긴 하네요.

F: 아까는 다 좋을 것 같다더니 문제점을 세 개나 말하네요! 그럼 Stefano 씨가 예상한 내용이 과연 맞을지 기사를 들어 봅시다. 앞에서 이야기한 표현 중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고용', '전일제' 등에 집중해서 내용을 들어 보세요.

N: 주부 김모 씨는 네 살 된 아이의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위해 오전 8 시~12 시 시간대만 선택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먼저 퇴근하는 것이 눈치가 보여 출근을 한 시간 일찍 합니다. 때로는 12 시가 넘을 때까지 일을 할 때가 있지만 초과수당은 입 밖에 내기도 힘듭니다. 은행에서 근무하는 이모 씨도 육아 휴직 후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직원 하나가 퇴직했지만 은행에서 대체 인력을 뽑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한 시간까지만 일하고 싶지만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일을 일부러 더 할 때도 많습니다. 이처럼 시간선택제로 일하는 근로자들 중에는 주위 시선을 의식해 정해진 시간 보다 더 일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감지한 일부 업체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정규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선호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2013 년 도입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평합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가 근로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아이 양육을 위해 시간선택제를 지원하는 여성 대부분은 오전 10 시~오후 4 시 시간대를 원하지만 실제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는 대체로 오전 8~12 시, 오후 1~5 시 등으로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시간 선택제로 일하면서 일을 선택한 시간보다 더 한 경우에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또 시간 선택제는 단순 반복 업무, 고객응대 등의 일자리가 많고, 이들 근로자를 위한 교육 훈련과 승진 기회도 적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간선택제가 질적으로 성장하려면 근로자들 스스로가 근무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자의 '시간선택신청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 유형을 8 시간 전일제를 기준으로 4 시간, 2 시간 근로나 월수금 출근 등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 교수는 "해당 근로시간 전환신청권의 대상과 요건, 시간제 근로기간의 상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시간선택제에서 전일제 등 기존 직장에서 근무형태를 바꿔 일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확산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출산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후 다른 곳에서 시간선택제로 일하는 것은 경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같은 직장에서 단축 근무 등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식의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 와, 아까 Stefano 씨가 말했던 문제점들이 여기 다 나왔네요.

M: 그러네요.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자세한 내용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F: 그러죠. 먼저 첫 부분입니다.

N: 주부 김모 씨는 네 살 된 아이의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위해 오전 8 시~12 시 시간대만 선택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먼저 퇴근하는 것이 눈치가 보여 출근을 한 시간 일찍 합니다. 때로는 12 시가 넘을 때까지 일을 할 때가 있지만 초과수당은 입 밖에 내기도 힘듭니다. 은행에서 근무하는 이모 씨도 육아 휴직 후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직원 하나가 퇴직했지만 은행에서 대체 인력을 뽑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한 시간까지만 일하고 싶지만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일을 일부러 더 할 때도 많습니다. 이처럼 시간선택제로 일하는 근로자들 중에는 주위 시선을 의식해 정해진 시간 보다 더 일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감지한 일부 업체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정규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선호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F: 여기서는 먼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시간 선택제 고용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M: 이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점을 두 개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시간선택제지만 자신이 선택한 것보다 훨씬 오래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더 오래 일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돈, 즉 초과수당은 받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F: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이 정규직 직원을 더 뽑아야 하는 경우에도 뽑지 않고 시간선택제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었어요.

M: 아무래도 정규직 직원에게는 의료 보험이나 퇴직금, 월급 등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돈인 인건비가 들지만 시간 선택제 직원에게는 그런 돈이 안 드니까 인건비가 덜 들어서 그런 거겠죠?

F: 그렇죠. 그럼 다음 부분을 보면서 정부는 시간선택제 고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N: 정부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2013 년 도입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평합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가 근로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M: 한국 정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네요. 뭐 물론 자평한 거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요.

F: 네. 실제로 일자리가 늘긴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가 실제로 일자리 증가, 근로자, 기업에게 모두 좋은 건지 다음 내용을 들어 보지요.

N: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아이 양육을 위해 시간선택제를 지원하는 여성 대부분은 오전 10 시~오후 4 시 시간대를 원하지만 실제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는 대체로 오전 8~12 시, 오후 1~5 시 등으로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시간 선택제로 일하면서 일을 선택한 시간보다 더 한 경우에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또 시간 선택제는 단순 반복 업무, 고객응대 등의 일자리가 많고, 이들 근로자를 위한 교육 훈련과 승진 기회도 적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M: 역시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었네요.

F: 네. 그리고 앞에서도 나왔던 초과수당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도 다시 지적되었고요. 일의 내용에 대한 비판도 있었네요.

M: 사실 예를 들어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던 여성이 단순 반복 업무나 고객 응대 등 완전히 다른 일을 하면 경력이 단절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F: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 다양한 대안과 조언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대안이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지요.

N: 이에 전문가들은 시간선택제가 질적으로 성장하려면 근로자들 스스로가 근무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자의 '시간선택신청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 유형을 8 시간 전일제를 기준으로 4 시간, 2 시간 근로나 월수금 출근 등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 교수는 "해당 근로시간 전환신청권의 대상과 요건, 시간제 근로기간의 상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시간선택제에서 전일제 등 기존 직장에서 근무형태를 바꿔 일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확산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출산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후 다른 곳에서 시간선택제로 일하는 것은 경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같은 직장에서 단축 근무 등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식의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 흠... 먼저 정말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게 '시간선택신청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4 시간, 2 시간 근로, 요일 선택제 등으로 그 유형도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F: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자신이 하던 일과 다른 일을 하게 되어서 실제로는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M: 그런 걸 '전환형 시간선택제'라고 하는군요.

F: 네. 출산 후 자신이 일하던 회사로 돌아와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나와서 시간제로 일하거나 좀 짧게 일하다가 아이가 큰 후에 다시 전일제 정규직 직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M: 와, 그렇게 되면 정말 '경단녀'라는 단어는 사라진 단어가 되겠네요.

F: 제가 출산하기 전에 꼭 그런 제도가 안정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M: 저도 진이 씨의 출산과 제도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웃음)

F: 오늘은 한국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기사를 소개했는데요. 기사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Stefano 씨, 우리 주소 알려 주세요.

M: 우리 주소는요. www.facebook.com/twinkling.korean 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F: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M: The piece of news from above is an adapted excerpt from the article '시간제 일자리 늘었다지만...고용의 질은 우울' that appeared on the 해럴드 경제 on July the 24th 2015. Twinkling Korean, the Korean Learning podcast is designed and recorded by Gilddong KFL.